광주시 기초의원들의 갑질 사례

개인 청탁에 의한 자료를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처럼 말하거나, 기초의원에게는 자료 요청권한이 있다면서 보좌관들이 강압적으로 부당한 자료를 요청해요

지인들 인사청탁을 비롯해 지인 업체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해오고 있어요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을 넣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해요

"가족 운영 커피숍 이용해라" "생일 선물 달라" "병원 가는데 관용차 운전해라"

기초의원 '갑질' 천태만상…공무원을 '종' 부리듯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합원 인식' 설문

3375명 중 65% "기초의원 '갑질' 있다" 답해

인사 청탁·이권 개입…법령 위배 지시 등 다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실시한 광주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요구 조사' 설문조사 결과, 기초의원들의 각종비위가 봇물을 이뤘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불법으로 밝혀지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불법에 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용인해준 공무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경찰 수사 요청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간 전체 조합원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375명 중 65%가 기초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사례가 제보됐고,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지인에게 공짜로 가져가도록 하는가 하면, 특정인에 대한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관급자재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점검 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법령 위배 행위를 지시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삭제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다 못해 생일이라며 선물 강요하고, 선물을 안하면 자료요구 및 불필요한 민원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들이 몇 몇 의원은 실명으로 비위·비리 사례를 제보하기까지 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무소속·마 선거구)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은근히 압박하고, 인근에 커피숍이 생기자 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본인이 법원에 갈 때 공무원이 동행토록 하고 본인의 병원 진료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운전까지 요구하는 등의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북구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수의계약 등 입찰문제,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 요구, 선심성으로 단체에 사업비 편성, 특정사람 일자리 요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요구, 인사청탁 등을 해왔다고 제보됐다.

같은 의회의 전미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동부시장 상인회장과의 불편했던 관계의 보복성으로 동부시장 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백순선 의원(무소속·나 선거구)은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일감을 따가거나 의회 활동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권리당원모집을 요구하는가 하면 특별교부금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갑질 행위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기초의원 대다수가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기초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개선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병원, 의료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조선대병원이 최근 '2019년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관련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33개 권역 중심병원과 190개 참여병원을 지정한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실시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권역 중심병원인 조선대병원은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 기술 자문과 인력 교육 및 예방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을 조기에 구축하고 꾸준히 모의 상황별 훈련을 실시해 온 조선대병원은 의료관련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윤나라 감염관리실장은 "권역 중심병원으로서 감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의료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호남대, 차세대 초고속 와이파이존 '호이파이' 구축

호남대학교가 캠퍼스 전역에 초고속 와이파이6(Wi-Fi 6)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데이터요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이파이'(호남대+와이파이)로 이름 붙여진 호남대의 와이파이 6 무선랜 서비스는 캠퍼스 모든 곳에서 초고속 무선 인터넷 무료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현장에서 변화된 모바일 학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까지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이파이' 구축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기존 와이파이보다 전송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지며, 많은 디바이스가 밀집된 강의실이나 도서관 같은 공용시설에서도 무선랜의 안정적인 접속으로 고품질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디바이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학사행정 처리는 물론 정보 보안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 1000명 돌파

도교육청, 학부모와 라이브로 소통

전남교육청이 9일 도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실에서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 1000명 돌파를 기념해 장석웅(가운데) 교육감과 학부모 대표의 라이브 토크를 진행했다. 전남지역 학부모 간 SNS소통망인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는 지난해 8월 13일 개설됐다.

이날 토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이유, 참여 방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학부모 대표 2명(최유현 목포학부모대표, 김은미 광양학부모컨설턴트)이 장 교육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학부모회 설치 조례 제정으로 견고해진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기반으로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밴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올 여름은 더위 대신 비

장마 38일 이어져

올 여름 광주·전남은 대체로 선선하고 많은 비가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 여름(6~8월) 평균기온은 24.2도로 평년(23.9도)보다 높았다.

6월의 평균기온은 22.4도로 평년(21.3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왔지만 7월 장마가 길어지면서 평균기온이 22.8도에 머물렀다. 다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8월은 평균기온이 27.3도로 평년(25.8도)보다 높았다.

올 여름철 폭염일수는 광주 13일, 전남은 4.5일로 평년(광주 12일·전남 6.1일)과 비슷했으며 열대야 일수는 광주 17일, 전남 17일로 평년(광주 12.5일·전남 8.8일)보다 많았다. 목포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며 최장 지속일수(19일)를 기록했다.

올 여름철 강수량은 995.3㎜로 1973년 이후 7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515㎜의 비가 내리며 여름철 평년강수량(788.3㎜)의 68%에 해당하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는 6월 24일에 시작해 7월 말까지 38일 동안 이어졌다. 이는 평년(32일)보다 긴 장마일수이며, 장마철 광주와 전남의 강수량은 507.2㎜로 1973년 이후 7번째로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 수시합격 신입생 전원에 지원금

'최초 합격자' 60만원

광주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등록자 전원에게 학업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대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한 재난극복 특별장학금(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1.3%)을 지급한 데 이어, 신입생들에게도 학업 활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시모집 등록자 전원은 학업 활동 지원금 20만 원을 받게 되며, 신입학 전형에 지원해 최초 합격한 신입생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학업장려장학금 40만 원을 포함해 총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원 내·외 전형에 복수 지원해 합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학업장려장학금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